A QUALITATIVE STUDY ON PASTORAL CARE AND THE HEALING OF CONFLICTS IN A RURAL COMMUNITY: A THEOLOGY OF HOSPITALITY APPROACH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Giyoung Sung
May 2020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Giyoung Su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Namjoong Kim, Chairperson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20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PASTORAL CARE AND THE HEALING OF CONFLICTS IN A RURAL COMMUNITY: A THEOLOGY OF HOSPITALITY APPROACH

by

Giyoung Sung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tudy and analyze the psychology that motivates conflicts between the natives of the rural village community and the outsiders who have moved to the countryside to lead a rural life, so that the church can promote harmony in the village community and contribute to its stability and development.

To this end, I selected some of the natives and outsiders in the village as participants and held in-depth interviews. I us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henomena present in the interviews in order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of their desires and expectations.

I also analyzed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inherent i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decolonism,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on conflicts within the village community and doing research on pastoral care centered on hospitality and theology.

Finally, this project presents practical directions and alternatives for pastoral care within the village based on the practice of hospitality. It concludes that the church's cosmopolitan leadership based on hospitality theology can help natives and newcomers coexist in solidarity despite their conflicts.

KEYWORDS: Theology of Hospitality, Ambivalence & Hybridity, Third Space, Cosmopolitanism, Pastoral of Hospitality

국문 초록

농촌마을 공동체의 갈등 치유와 목회돌봄에 관한 질적연구: 환대신학을 중심으로

by

Giyoung Sung

본 연구는 농촌 마을 공동체의 토착 원주민들과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주제 아래 그 이면에 내재된 심리를 연구 분석하여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농촌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같은 마을 공동체 안의 원주민들과 외지인들 중 일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근거이론을 통하여 사회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을 분석함으로 그 경험 속에 담긴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도출해 내었다.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 안의 갈등과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환대신학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하며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 내재된 심리적인 상태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환대 목회의 실천을 위한 마을 목회의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환대신학에 근거한 교회의 코즈모폴리턴 리더십을 통해 갈등과 분열에 빠진 마을 공동체가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실천적 환대의 목회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환대신학, 양가성과 혼종성, 제 3 의 영역, 코즈모폴리터니즘, 환대목회

SUMMARY

This study focused on conflicts between natives who have long been indigenous to the rural community and outsiders who have moved from the city center to enjoy a rural life. I use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sychological conditions inherent in the cultural or emotional differences that led to conflict. Therefore, I chos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based on the theory of evidence, I identified the experience, feelings, and attitudes of the study subjects, and then compared them to dra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tives and the outsiders. Through Anselm, Strauss and Corbin's coding process, Symbolic Interaction Theory, I identified and analyzed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natives and outsiders and the psychological thinking inherent in those causes. Through this analysis, I concluded that, even in the midst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the natives and the outsiders have no other choice but to unite and coexist with each other; thus, a third space must open up to mediate between them. This third space can be found in the church, as both natives and outsiders seek pastoral leadership, hoping that the church will assume a mediation role within the village communit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need for a change in perspective and attitude on the part of both the natives and the outsiders, who currently feel alienated and approach one another with coldness. To this end, I interpreted th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hospitality theology; furthermore, I conducted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decolonial concepts of duality and hybridity so that the church could play the role of mediator, helping community members reconcile and bringing the harmony to the village. I explained the Cosmopolitan leadership model to the local church during the praxis part of the hospitality gathering in the village, presenting practical direc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church's role in mediating conflict

and offering pastoral care. In particular, I proposed that pastoral care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church, but should rather be a community-wide undertaking, allowing the church to embrace the co-prosperity of both native and foreign residents, and naturally promoting the community's solidarity and harmony.

Therefore, the village itself should become a pastoral community, welcoming both natives and outsiders; hospitality can help heal conflicts and divisions as it is very effective way to bridge differenc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background. The church must remember the hospitality of God in the Bible so that they do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but rather unite with each other, acknowledging and accepting each other as caring, responsible, and united in spite of differences; it must practice hospitality as a form of neighborly love in Jesus Christ. Therefore, we must practice pastoral hospitality, which aims to create a comprehensive community in which everyone recovers their full humanity as a child of God.

I am confident that this study will help to heal the conflicts and divisions of the community and inspire effective measures in practicing the hospitality community. I further hope that Christianity will expand its recognition that pastoral care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church but should involved the whole village; this village-wide pastoral hospitality can transform church and village into just and equal places that practice Christianity as a religion of equality and solidarity, not as a religion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농촌 마을 공동체 안의 오랫 동안 토착민으로서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과 또 전원생활을 위하여 도심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양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어떠한 문화적 또는 정서적인 차이에서 발생했는지 내재된 심리적인 상태를 면담을 통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따라서 나는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서 질적연구를 택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 감정, 태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스트라우스(Anselm Strauss)와 코빈(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방법'의 코딩 과정을 통해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의 원인과 또 그 이면에 내재된 심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원주민과 외지인 간에 갈등과 대립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서로 연대하여 상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며 목회적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냉대와 소외라는 배타적인 현실 속에서 인식의 전환과 태도전환이 필요로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환대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중재 및 화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양가성과 혼종성을 통해 심리적인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환대목회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코즈모폴리턴 리더십을 근거로 하는 교회의 리더십을 설명하며 갈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목회적 돌봄에 대해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목회적 돌봄이 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는 마을목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교회가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를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대 및 화합을 도모하는 제3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를 향한 마을 목회가 환대적 목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대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데에 환대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는 서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연대하며 상생하도록 성서 속의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로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포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환대 목회를 실천해야 한다.

나는 본 연구가 마을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환대목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나아가 기독교가 차별과 배제의 종교가 아닌 평등과 연대의 종교로서 예수정신을 실천하여 교회와 마을을 정의롭고 평등한 곳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마을 목회로서의 인식의 확대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나는 현재 60 여 가구를 이루고 있는 농촌지역 교회에서 3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다. 나는 농촌목회를 시작하면서 평소 말씀과 성례전을 베풀고 목회 돌봄을 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목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위치한 마을의 공동체를 위한 목사로 사역하고자 하는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미 교회와 마을 공동체에 이 뜻을 밝힌 바가 있다. 이 마을은 도심으로부터 근교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서 예부터 OO O 씨 집성촌으로 이어져 오며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친인척으로 가까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고추와 쌀 등의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마을로 곧 바로 진 출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도시지역에서 마을로 오고 가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때문에 인근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하고자 이주해 오는 외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녀세대들의 도심 전출로 인해 고령의 부모 세대만 남아 있던 마을에 새롭게 전입하는 외지인들로 인해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어느 날 마을 이장(里長)이 교회를 찾아와 기존의 주민과 새로 전입한 외지인 간의 다툼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 마을 사람들이 섣불리 나섰다가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의 목사가 나서서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양쪽의 당사자를 각각 만나 중재함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기존의 원주민들과 새로 이주해 온 외지인들 사이에 문화적, 그리고 정서적인 차이로 사사로운 갈등들이 발생하고 이는 서로 간의 배타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며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도 기존 성도들과 외지에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기존 성도와 외지에서 새로 전입한 성도의 갈등의 문제를 접하면서 어느 한편 입장을 지지할 수 없는 담임 목사로서의 내면의 고충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적은 가구수를 이루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서도 경험하며 그 갈등의 문제 해결을 요청받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들의 전원생활로의 귀촌 또는 귀농이 잦은 상황에서, 토착 원주민들과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에 빚어지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첫째, 그 갈등의 이면에 내재된 그들의 심리적인 사고는 무엇인가? 둘째,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냉대와 차별은 어떠한 기대에 대한 욕구불만인가? 셋째, 그들의 관계는 전혀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를 질문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나는 원주민과 외지인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농촌목회 현장에서의 원주민과 외지인이 충돌하는 갈등의 상황을 분석하여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며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타 농촌지역의 교회들에게도 도움을 주어 농촌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B. 논지와 토론

나는 일찍이 본 교회에 부임하면서 마을목회를 공언한 바가 있다. 교회는 도시이든 농촌이든 그곳에서 선교적 필요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조건없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목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성석환은 “마을목회가 의미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통칭하는 것 이다”[1]라고 말한다. 이는 자칫 유교적인 보수주의 사상이 강한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강남순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차별과 복종 문화’가 강한 그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을 요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2] 이를 위해 교회가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 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마을의 일부가 되어 교회가 속한 그곳에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목회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목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순은 “기독교가 제도화된 종교로 굳어지기 전에 기독교의 모체는 예수정신을 실천하며 살고자 했던 이들의 ‘평등 공동체’였으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업받은 이들의 ‘해방 공동체’였다”[3]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의 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강남순은 타종교, 젠더, 타교단, 장애우 등 중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과 연대하고 사랑하며 환대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말한다.[4] 즉 교회의 안과 밖이 예수의 정신과 상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의 토착 원주민으로서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가부장적인 편견과 반목으로 서로 간에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의 문화적, 정서적인 갈등으로 인해 평등과 자유가 아닌 차별과 억압으로 표출되며 마을 공동체를 경직되게 하고 있다. 교인들 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고 섬김을

---

[1]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한국적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8), 187.

[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동녘, 2018), 106.

[3] 강남순, 107.

[4]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lecture, Claremong School of Theology, 목원대학교 신학관 강의실 201호, September 1, 2019).

다짐하며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마을 목회에 대한 목회적 고민을 더하게 한다.

이 마을은 OO O 씨 집성촌으로 오랫동안 터전을 지켜 온 주민들이 대부분 친인척 관계를 형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때문에 문제 사안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때로는 같은 문중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기투합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로 그 세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는 씨족사회가 갖는 특유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를 들면 지역에 전입한 외지인들의 신축건물과 그들의 도시적인 삶의 문화와 정서가 원주민들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 내 관습이나 관행에 대해 외지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원주민으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원주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며 냉대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외지인들은 전원생활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귀촌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열망과 함께 대부분 자신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자하며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때문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며 삶의 질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소외로 인해 전원생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원주민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가며 마을 공동체의 일에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 지역의 토착민으로서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지켜왔던 원주민들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위를 행사하려는 외지인들 간의 위화감 속에서 차별과 소외, 또한 냉대라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발생한 문제의 사안보다는 서로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신과 열등감, 그리고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때문에 이들의 갈등과 분열, 다툼 속에는 서로가 대화하지 않는 아니 대화의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소통 부재의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농촌 마을 공동체 안에 기존의 토착 주민들과 새로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의 정서 또는 문화의 차이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다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남순이 말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지며, 또한 예수 정신으로서의 연대와 사랑, 그리고 환대를 마을 목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5]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 안의 갈등과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환대신학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탈식민주의적 해석을 시도하여 갈등과 분열에 빠진 공동체에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환대의 목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독교가 차별과 배제의 종교가 아닌 평등과 연대의 종교로서 예수정신을 실천하여 교회와 마을을 정의롭고 평등한 곳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인식의 확대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함으로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알아보고, 질적 연구 방법의 근거이론을 통해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목회돌봄을 위한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C. 청중

본 연구의 주된 청중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는 농촌지역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며 부차적 청중은 농촌 지역으로 귀농 및 귀촌하여 정착 중인 사람들과 또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의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지역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목회와 공동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전원목회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다.

[5] 강남순, "Gender-Related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따라서 이 연구는 도농이 결합되는 마을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 그리고 통합을 염두해두고 그들에게 대안적 사고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 연구 범위의 제한성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실제 목회 현장을 중심으로 경험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환경과 상황의 차이에 따른 다른 견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마을 공동체의 갈등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농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토착 원주민과 이곳에 전원 생할을 위하여 이주해 온 외지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기인한다. 때문에 이 연구는 '○○시 ○○읍 ○○리'라는 마을과 그 마을 공동체에 공존하는 원주민과 외지인, 그리고 그들을 경험하는 교회와 목회자라고 하는 데에 연구 범위와 제한성이 있음을 밝힌다.

E.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본 연구는 도농이 결합하는 마을 공동체의 갈등의 상황과 갈등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환대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회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목회적 돌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갈등의 유형과 갈등의 구조 등 갈등의 실태가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어떠한 문제상황과 어떠한 심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질적연구방법의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해 내었다. 아울러 공동체 안의 화합과 목회적 돌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을 공동체의 갈등과 치유의 주제는 도농이 결합되는 농촌지역이라는 차별성과 함께 현재 그 공동체 속의 목회현장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연구부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사한 갈등이 있는 지역이나 특정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 목회 또는 전원목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그리고 지역단체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인 공헌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F. 문헌자료의 평론적 검토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의 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 마을 공동체의 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의 공동체의 갈등을 연구한 학술적 자료들을 검토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갈등과 목회적 돌봄을 위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환대목회에 관련 있는 문헌자료들을 평론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방향을 도출해 내었다.

먼저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의 책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는 환대의 의미와 실천의 성서적 이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내용으로써, 공정한 환대의 특징인 포괄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할 일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적 정체성과 역사들, 그리고 현재의 관계들에 대하여 말하는 환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환대신학으로 출발해 나아가면서, 탈식민시대 신학으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셀은 본 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행동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환대를 생각하는가?'를 중요시하며 모두 환대에 대한 전통적이고 상투적인 의미를 확장하고 교정하는 것을 돕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이 곧 신학을 하는 풍요한 토양이라고 생각하도록 자극을 준다.[6] 그녀는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에서 어떻게 차이가 작용하는가에 대해 좀 더 풍부하고 복잡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식민시대 신학의 관점을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들과 구조들을 재 구성할 필요성을

[6]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6.

갖게 하며 환대신학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틀짜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 연구에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환대를 설명하고 환대목회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강남순의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는 삶 속에서 많은 조우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함께-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보는 시선이 무관심과 냉담함에서 따스함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남순은 "다양한 타자를 '동료 인간'으로 존중하고, 나아가 환대와 연대를 나누는 '포용의 원'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7]고 말한다. 그러면서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담론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개별인들이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 함께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우리의 환대, 연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근거로 삼는다고 말한다.[8] 이러한 의미에서 강남순은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을 말하며 타자를 자신과 무관한 존재가 아닌, 자신이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해야 할 존재로 본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차별과 배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강남순이 말하는 환대 담론의 예수적 환대와 코즈모폴리턴 시선은 '절대적 환대'와 '방문의 환대'로 나아가게 하며 본 연구에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으로의 정립에 도움을 주었다.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의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신적인 폭력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환대를 소개하며 환대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는 화목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복음적 환대를 말하는 데, 이 복음적 환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화목의 환대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한스 부르스마는 이 복음은 진정한 이타심이며 우리의

---

[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
[8] 강남순, 159.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라는 공식 초청이며 또한 타인 중심적인 용서와 화목의 복음적 실천의 모범이 되는 환대 공동체가 된다고 말한다.[9]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로서의 환대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환대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공공의 정의와 해방의 환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교회의 경계를 넘어 밖에까지 환대를 실현하는 복음적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목의 실천이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책은 우리의 교회가 오직 환대와 화목의 공동체로서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조용훈의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는 지역의 교회들이 지구 생명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10]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지도상의 구분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는 '마을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을 목회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함께 대안적 마을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농촌 공동체로서의 현실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에 위치한 교회는 마을이 선교의 공간이 되며 마을 주민이 모두 잠재적 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마을 목회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는 환대 공동체로서 마을 주민과 더불어 살며 마을 향해 열린 모습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마을 주민을 대상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에 도전을 준다. 교회의 관심을 교회 밖의 마을로 전개하기 위해 교회는 지역 마을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주민들과 밀접한 접촉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서는 교회가 마을 목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과 연대하는 마을 교회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을 목회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9]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trans. 윤성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359.

[10]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서울: 동연, 2017) 참조.

Chapter II

질적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방법: 근거이론

본 연구는 농촌 지역에서 오랜 동안 토착민으로서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과 전원생활을 위하여 도심에서 귀촌한 외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양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어떠한 문화적 또는 정서적인 차이에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며 그 갈등의 치유와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를 직접 면담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나는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서 질적연구를 택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 감정, 태도 등을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내부자적 시각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관심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유기웅 외에 따르면 "질적연구란 행위자들이 모종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이다"[11]고 말한다. 즉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으로서 사회현상, 또는 사회적 현상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해석학적 입장에 근간하고 있다.[12] 이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영순에 따르면 "질적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환기하거나 변화시는 데 기여한다"[13]고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을 이해하며 편견 없는 시각과

---

[1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28.
[12] 유기웅 et al., 28.
[13] 김영순 et al., *질적연구의 즐거움=Qualitative Research* (서울: 창지사, 2018), 39.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문에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자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연구의 의미와 의도를 가져야 한다. 김영천은 질적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질적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의미와 이해이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토속인, 이방인, 타인, 연구 참여자 등)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는 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의미란 그들이 갖게 되는 형태이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징 등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한다.[14]

따라서 원주민들과 외지인들 서로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인지를 이해하며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질적연구가 적합하다. 그리고 나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근거이론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1967 년 글레이저(Barney Glaser)와 스트라우스(Anselm Straus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미가 생성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15] 즉 근거이론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추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유기웅 외에 따르면 "근거이론이란 실제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자료 그 자체에 근거를 두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침이다"[16]고 말한다. 김영천에 따르면 근거이론은 사회현상이 주는 의미의 근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개인 혹은 사회의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17] 즉 자료 수집을 통하여 하나의 환경이나 특별한 사건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혹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14]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16.
[15] 김영순 et al., *질적연구의 즐거움*, 306.
[1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76.
[17]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346.

근거이론을 통해 나는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핵심 범주를 분류하고 패러다임의 모형을 도출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여기에 환대신학 관점에서의 신학적인 해석과 목회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빚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및 파악을 하였다.

B.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나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마을의 원주민과 외지인들 중 몇몇의 주민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1 대 1 면담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김영천에 따르면 심층면담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주체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 즉 연구 대상 주체들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다.[18] 유기웅은 "심층면담은 일정한 정보를 습득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서 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의 연구주제가 된다"[19]고 말한다. 즉 질적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의 방법으로서 면담이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대화, 또는 의사소통 과정으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의도적인 대화이다.

나는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마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과 외지인 각각 50 대, 60 대, 70 대 연령대의 주민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그들과

[18]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Ⅲ: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1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8.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구에 적절한 질문을 준비하고, 그들의 내재된 이야기를 경청하며 참여자 자신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느낌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주요 활동 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을 행사 및 모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는 자들로 선정을 하였다. 이는 마을 공동체 내의 전반적인 정서나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수십년 동안 거주해 온 기존 원주민들 외에 이주해 온 외지인들은 적어도 2 년 이상 마을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조건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중 평소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실제 현안에 참여하고 있는 50 대에서 60 대의 마을 주민 중 여성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그에 따른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현장 파악을 통한 결과, 위 기준에 부합되는 원주민 5 명과 외지인 5 명을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분	연구참여자	연령대	거주경력	직업	성별
원주민	연구참여자 A	50 대	22 년	농업	여성
	연구참여자 B	60 대	62 년	농업	여성
	연구참여자 C	60 대	62 년	농업	남성
	연구참여자 D	60 대	68 년	농업	남성
	연구참여자 E	70 대	71 년	농업	남성
외지인	연구참여자 A	50 대	8 년	사업	여성
	연구참여자 B	60 대	5 년	사업	여성

	연구참여자 C	60 대	3 년	농업	남성
	연구참여자 D	60 대	4 년	사업	남성
	연구참여자 E	70 대	10 년	사업	남성

나는 위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면담기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면담 가이드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20]

1. 이곳에 거주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2. 이 마을의 좋은 점(장점)은 무엇인가요?
3. 이 마을의 불편한 점(단점)은 무엇인가요?
4. 원주민(외지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5. 원주민(외지인)에 대해 최근에 겪은 실망감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원주민(외지인)에 대해 좋은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7. 원주민(외지인)이 외지인(원주민)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8. 원주민(외지인)들과 상생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9. 마을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한 원주민과 외지인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 이 마을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지 바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1. 마을 공동체를 위해 교회와 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326.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연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질문을 진행하면서 원주민이나 외지인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심층면담에서 선행된 '판단중지(epoché)'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1. 원주민들은 학문적 지식과 문화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2.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원주민들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한 자존심이 강할 것이다.
4. 원주민들은 공동체성 보다는 개별성이 강할 것이다.
5. 외지인들은 학문적 지식과 문화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6. 외지인들은 원주민들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외지인들은 재정이 넉넉할 것이다.
8. 외지인들은 공감과 소통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9. 외지인들은 마을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다.
10.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 본 연구에 대해 호전적일 것이다.

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심층면담의 소요시간은 60 분 내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과 함께 필사되어 연구자료로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에 대해 익명성을 비롯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원하는 경우 면담 철회와 녹음 중지가 가능하며, 면담 내용에 관한 모든 자료는 연구 기간 이후 모두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

[2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95. "에포케(epoché)는 후설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정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로,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우리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 그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엄격하게 윤리적인 보호 아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하는데 연구자료로 사용할 것도 함께 설명하였다. 면담 장소는 다른 주민들의 시선에 뜨이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택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교회 목양실이 면담의 장소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C. 연구진행과정

나는 연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의 면담을 2019 년 10 월 20 일부터 11 월 19 일까지 진행하였다. 모두 면담을 시작하면서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1 회의 면담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는 몇차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짧은 면담을 갖기도 하였다. 평균 45 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했으며 일부는 연구참여자의 형편상 30 분 정도의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과 필사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요청에 따라 필사만을 하기도 하였다. 나는 녹음과 필사된 내용을 초기자료로 생성하고 근거이론 방법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수시 면담과 동시에 자료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반복되는 면담 내용들을 핵심요소들로 축약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국 작은 범위의 마을 공동체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판단되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과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나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서로 상호관계를 갖는 자료 수집과 그리고 이론을 통한 사회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자들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나는 스트라우스(Anselm Strauss)와 코빈(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트라우스(Anselm Strauss)와 코빈(Corbin)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론방법'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방코딩(open coding)은 미시 분석을 통해 자료를 해체하고 개념화하며 단어별로 자료를 분석하여 단어나 어휘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코딩으로서, 문장이나 문단을 해체하고 각각의 사건, 아이디어에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적 이름을 부여한다.[22] 그리고 자료를 펼쳐 개념들을 발견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며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밝히는데 즉 그 범주나 그 속성, 차원의 위치를 검사 비교하여 개념화시키고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23]

둘째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범주들 중에서 중심현상을 파악하고 범주들을 코딩 패러다임(coding paradigm)을 통해 하나의 도식으로 현상을 개념화시키는 단계이다.[24] 이는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많은 범주를 현상, 상황, 전략, 결과와 같은 패러다임 특성에 따라 연관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코딩 패러다임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s)로 구성된다.[25]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일으키는 원인의 조건을 의미하며, 중심현상(phenomenon)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하고,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

[22] 김영순 et al., *질적연구의 즐거움*, 314.

[23]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Ⅱ*, 374.

[24] 김영순 et al., 315.

[25] Strauss and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s, Inc, 1990), quoted in 김영순 et al., 315.

전후관계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도 하며,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은 ‘누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 개념적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결과(consequences)는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를 의미한다.[26]

셋째,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단계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하여 이론을 생성시키는 과정이다. 근거이론의 최종적인 통합단계로서 보다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이론적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를 지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27]

나는 이와 같은 3 단계의 코딩 과정을 통해서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갈등의 원인과 또 그 이면에 내재된 심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그 경험 속에 담긴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인식의 세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코딩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나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필사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리한 것을 읽어주어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또한 연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면담의 녹음과 필사의 모든 연구자료들은 철저히 보안 조치하였다. 연구결과 작성 시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신상 정보들을 삭제하며, 면담 내용은 특정 인물이나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에 대해서는 OO 으로 표기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D. 연구 결과

근거이론의 개방코딩을 통해 심층면담 대상인 원주민과 외지인을 상대로 각각의 개념과 하위범주, 그리고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축 코딩을 통해 범주들의 관계를 〈표 2〉와 〈표 3〉과 같이

---

[26]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I*, 380.

[27] 김영천, 384.

정리하였다.

〈표 2〉 개방코딩의 결과(원주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요소
· 외지인의 거만한 말과 행동 · 무시하는 태도 · 대화를 거절하는 태도	기대와 다른 모습	소외와 차별의식	인과적 조건
· 외지인의 마을 일에 비협조적 · 자기 중심적 · 시골정서 이해부족	지역 관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	상대적 박탈감	
· 비인격적인 대우 · 대화 및 관계 단절 · 배타적인 언행 일관 · 활동의 통제(통행방해)	소외와 무시로 맞대응	지역 권위의식에 의한 냉대와 소외	중심현상
· 양보와 배려 부족 · 자기과시 · 이기적인 사람 · 배운 사람에 대한 실망 · 마을의 전통 무시	외지인에 대한 평가절하	자기중심적 판단	맥락적 조건
· 마을 가꾸기 사업 협력 · 마을 민원사업 협력 · 마을 공감과 소통 기구 역할 · 마을 관련 사업 행정지원 · 마을 대동제 주관 · 마을 중재적 역할	교회의 역할 기대	목회 리더십 요구	중재적 조건
·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 ·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을 · 자녀들의 귀향 기대 · 외지인 마을모임 참여기회	향후 마을 변화에 대한 기대	연대에 의한 희망 만들기	작용/상호작용

· 마을 민원사업 참여			
·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 · 마을 난개발에 대한 공감대 · 외지인으로 인한 인구 증가 · 마을에 젊은 층 유입	마을 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대감	결과

〈표 3〉 개방코딩의 결과(외지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요소
· 원주민의 예상 밖의 냉대 · 대화의 거절 · 불친절 · 불법 관행 요구	기대 이하의 시골 정서	자존감 손상	인과적 조건
· 불결한 환경 · 일방적 관행 요구	요구되는 지역관행	생활의식의 차이	
· 무시와 소외 · 마을 행사의 비협조적 · 마을 관습의 무시 · 법 근거 권리 주장	냉대에 따른 대응	상대적 권리 주장	중심현상
· 예절이 없는 사람들 · 배우지 못한 사람들 · 나이가 많은 사람들 · 집성촌으로 친인척의 사람들	원주민들에 대한 불만 표출	지역 존재감 부정	맥락적 조건
· 마을 이장의 행정 도우미 · 마을 행사에 목회 지도력 요청 ·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관공서 사업 지원 유치 · 원주민과 외지인의 매개체 · 마을 공동체 화합의 중심	교회의 역할 기대	목회 리더십 요구	중재적 조건

· 마을발전협의회 발족 요청			
· 감정적 대응 자제 · 주민 이야기 경청하기 ·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 잘하기 · 마을 행사 및 모임에 적극 참여 희망	구체적인 실천 의지	공동체원으로서의 역할 기대	작용/상호작용
· 같은 공동체의 주인의식 · 마을 발전에 대한 공감의식 · 마을 사업에 동참 희망	같은 마을 주민이라는 의식	공동체 발전에 대한 공감대	결과

먼저 인과적 조건에는 원주민과 외지인 각각 중심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성격을 띄는 범주들을 함께 연결지어 구성하였다. 해당 범주에는 원주민은 '소외와 차별의식', '상대적 박탈감'이 해당되며 외지인은 '자존감 손상', '생활 수준의 차이'가 해당된다. 이러한 범주를 도출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의 대표적인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와 차별의식]

(연구참여자 원주민 A)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의도 있고 또 시골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것으로 보통 예상들 하는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마치 시골에 자신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잘 안하고… 꼭 사람 무시하는 것 같고… 외지인들끼리는 잘 만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 하는데 우리하고는… 암튼 도시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기대감이 깨진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연구참여자 원주민 C) 마을에 모임이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잘 참석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마을 환경정리 같은 일을 할 때 외지인들은 거의 잘 나오질 않아요. 처음에 나오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고 나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마을 경조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주변을 가꿀 때도 이웃과 의논없이 길에 손을 댄다던가 또 자기 땅이라고 오래 전부터 다니던 길을 좁게 만들어 차가 지나지 못하게 한다던가… 조금

의논만 하면 서로 기분좋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마치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맞는 전통이나 관례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이예요. 그러다보니 살다살다 이게 뭔가 싶고…

[자존감 손상]

(연구참여자 외지인 A) 시골 사람들 하면 보통 인심이 좋고 넉넉한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도심 보다도 더 강퍅하고 차가운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골에 이사와서 원주민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했지만, 왠지 시골 분들이 무엇이 부담스러운지 말도 잘 안하고, 뭘 물어도 퉁명하게 대답하고 대하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게다가 묻지도 않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오거나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고 가는 등 너무 예의 없고 불친절한 것 같아요. 때문에 기분이 항상 좋지를 않지요.

[생활의식의 차이]

(연구참여자 외지인 C) 우선은 시골 분들이 아무래도 좀 깨끗하지를 않아요. 쓰레기들을 아무데서나 태우고, 음식물들을 그냥 밭에다 버리기도 하고… 생활 수준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에 외지인들이 점점 이사해 오고 그러면 시골 분들도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고 어떠한 경우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길을 막아 놓고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하기도 하고… 너무 기본예의가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부딪히기 싫어서 납부하긴 했지만 이사 올 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낸다든가 또 마을 이장에게 리세를 내야한다던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관행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례라지만….

중심현상에는 원주민들은 ‘지역 권위의식에 의한 냉대와 소외’ 와 그리고 외지인들에게는 ‘상대적인 권리 주장’의 범주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지역 권위의식에 의한 냉대와 소외]

(연구참여자 원주민 B)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도 부드럽게 대하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외지인들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없어요. 그들을 신경 안쓰고 살면 그만이예요. 아쉬우면 그들이 아쉽지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두고 싶지 않고… 아무래도 고운 말, 좋은 말이 안나오지요.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으면 우리도 마을 길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그들만 손해예요.

[상대적 권리 주장]

(연구참여자 외지인 D)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마을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외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냉대를 받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다는 느낌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 마을 일에 협조할래야 할 수가 없지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거지요. 게다가 아무리 지역의 전통이나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좋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지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지요. 어렵게 결정해서 내려 온건데… 법대로 하면 마을 주민들 다 벌금 물어야 할거예요.

중심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해당하는 범주들은 맥락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해당 범주에는 원주민은 '자기 중심적 판단'이 외지인은 '지역 존재감의 부정'이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참여자들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자기 중심적 판단]

(연구참여자 원주민 C) 모든 외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암튼 외지인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소위 배웠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크지요. 지금까지 잘 지켜 오던 관례를 무시한 것도 꼭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도시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시골에 오면 시골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지역 존재감 부정]

(연구참여자 외지인 D)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골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사회적 경험이 부족할테니…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꼭 그렇게 보이도록 하지요. 아마 OO씨 집성촌이라 대부분 친인척 관계로 맺어 있기 때문에 관습이나 관행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상대하긴 쉽지 않지요. 표현하지는 않지만 갑의 위치에 있으려하는 그들의 존재감을 그닥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맥락적 조건에 이어서 원주민과 외지인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 '목회 리더십요구'는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조건이므로 중재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대표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목회적 리더십 요구]

(연구참여자 원주민 A) 사실 마을 입장에서 목사님이 여기에 오신 게 큰 복이죠. 교회가 마을 발전에 중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전의 마을의 민원도 목사님이 나서서 해결을 한 것처럼 앞으로 계획 중인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민원사업에 목사님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 진행할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진출입로도 목사님이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거에요. 그랬으면 마을은 고립이 되었겠지요. 교회에서 민원 일로 주민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한 것처럼 목사님이 마을의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해주고, 마을의 대동회와 같은 큰 행사 때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외지인 A)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문제를 목사님이 관여하셔서 원만히 해결된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을 이장님의 행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집집마다 '꽃나무 심기'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도 펼쳐서 마을이 변화되면 좋을 것 같구요. 관공서와 관련된 마을 지원사업도 끌어오기도 하구요. '마을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지요. 아무튼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마을을 위해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용/상호작용에는 연구참여자들이 마을 공동체에 기대하는 원주민과 외지인 각각의 역할의 모습을 연결시켰다. 해당 범주는 원주민은 '연대에 의한 희망만들기' 외지인은 '공동체원으로서의 역할 기대'이며 연구참여자의 대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연대에 의한 희망만들기]

(연구참여자 원주민 D) 목사님이 마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을이 가족처럼 행복한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외지에서 오고 싶은 마을, 도심으로 나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는 동네가 되면 좋지요. 외지인들하고 마음만 통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고, 진행 중인 민원 사업에도 외지인들이 힘을 모으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니거 내꺼 따지다간 모두 끝장날거예요. 이사 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살아야지요. 솔직히 외지인들이 오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힘을 모으면 마을에 도움이 될 테니… 노인네들이 뭘 아나요 고집만 있지…

[공동체원으로서의 역할 기대]

(연구참여자 외지인 B) 감정 싸움을 그만두어야지요. 어찌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인사도 잘 하고 주민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지요. 마을의 일이나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때문에 그런게 많지요. 이사 왔으면 이 동네 사람으로 함께 사는게 도리이지요. 이제 시골생활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으니 마을에도 관심을 갖고 이주민으로서 역할을 해야겠지요.

결과에는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란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의 대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대감]

(연구참여자 원주민 E) 그래도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인데 외지인들이 이사를 와서 좋은 점도 있지요. 노인네들만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을이 앞으로 개발이 되거나 하면 우리 노인네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힘을 써야겠지요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면 안되니까. 아무래도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요. 기대되는 마음도 솔직히 있기도 하고… 배운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리면 마을 입장에서야 좋기야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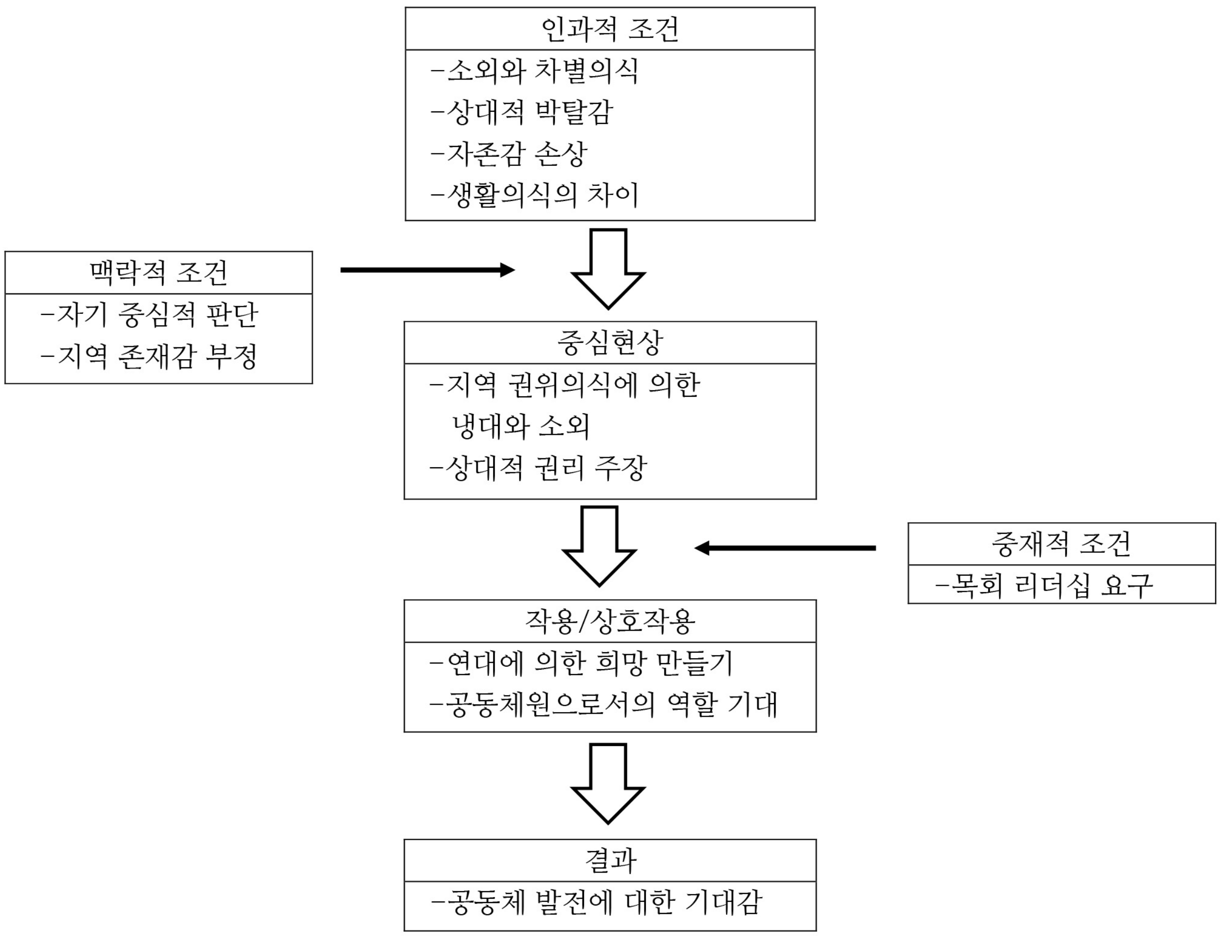
(연구참여자 외지인 E) 싫으나 좋으나 이곳에 이사를 왔고 한 마을 사람이 되었으니 어울리긴 어울려야지요. 마을이 발전하면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을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누구나가 마을이 발전하길 원할테고… 마을에 주로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니 서로 머리를 맞대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관계가 좋아지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할 날이 있을테지요.

나는 위와 같이 패러다임과 범주의 연결 작업을 하기까지 원주민 5명, 외지인 5명 총 10명의 연구자들에게 내재된 심리적인 상태를 도출해 내었고 더 나아가 내재된 기대심리를 도출, 분열과 냉대에서 상생과 연대로 이끌어 내는 데까지 집중하였다.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서로에게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나 서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접촉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면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 생각하는

관점만 다를 뿐 서로가 비슷한 감정의 문제를 바탕으로 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인간적인 양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긍정적인 사고와 기대 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다수가 현재 냉대의 현실이 속히 매듭지어지게 되길 기대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서로간의 대립된 긴장감으로 피로도가 쌓인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면담을 통한 대화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긍정적이었던 것은 연구에 참여한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의 상생과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속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원주민과 외지인의 면담 자료 내용의 분석 및 도출된 내용을 통합하여 축코딩을 실시,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축코딩 결과



끝으로 선택 코딩의 이야기 윤곽 제시 방법으로 개방 코딩과 축 코딩을 통해 언급되었던 개념과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형성하여 서술하고자 한다.[28]

연구 참여자들인 원주민과 외지인들은 서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며 서로 간의 소외와 차별, 그리고 의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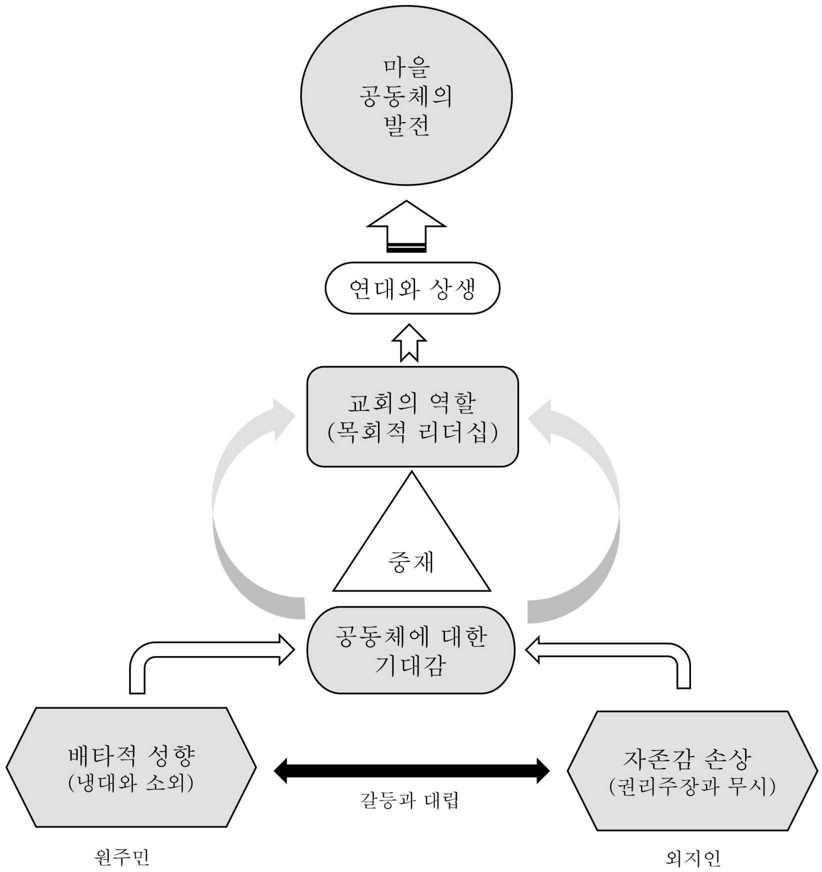
[2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98. “이야기 윤곽이란 ‘일종의 설명력을 지닌 통합적 이야기’로서 연구에서 발견된 핵심 현상을 서술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이해를 촉진시키는 기능 및 이론 생성을 위한 통합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

단절과 냉대와 무시라는 배타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며 서로 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갈등의 중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을 이기적인 사람들로 평가 절하시키고 또 외지인들은 원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그들에 대한 지역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분열 속에서도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시대적인 변화 또는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기대감들이 그들의 내면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원주민들은 마을에 전입해 오는 외지인들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또 마을 공동체의 상황에서 볼 때 그들과 상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지인들은 전원생활을 누리려고 마을에 전입해 온 이상 원주민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연대하여 상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간에 공통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서로 연대하며 상생할 때에 마을 공동체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서로가 이 기대감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는 원주민과 외지인이 현재는 서로 냉대와 소외로 관계가 분열된 상태이지만, 결국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원주민과 외지인 상호 간에 내재된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는 교회의 목회적 리더십이라는 중재 역할을 통하여 서로 간의 갈등의 관계를 극복하고 연대하며 상생으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선택 코딩을 다시 한번 그림 2 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2〉 선택 코딩 결과



결국 갈등 관계 속에서도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은 교회의 목회 리더십을 통해 서로 연대하며 상생하는 데까지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한다.

E. 논의 및 해석

코딩 작업을 통해 도출된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외와 차별, 박탈감, 그리고 자존감의 손상과 생활의식의 차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은 결국 자신의 권위를 지켜내고자 하는 욕구로 외적인 냉대와 소외로 나타나고 있다. 냉대란 말에는 배타적, 이기적, 그리고 무시와 소외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방향은 냉대가 만연한 공동체에서 환대의 공동체로 이끌어야 하는 명제를 가지게 된다.

환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들의 방식을 찾아가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때문에 원주민 자신들이 같은 지역에서 선조 대대로 이어져 살아오며 이미 전례 및 지역전통이 된 여러 관습들을 타지에서 들어온 외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수십년간 같은 지역, 그것도 농촌 지역에서 살아온 이들과 도시에 살다가 이주해온 외지인들 간의 정서와 문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방적으로 지역의 관습을 따라야 하고 또 이유도 없이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냉대와 소외를 당하는 외지인들 입장에서는 농촌 인심에 대한 실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지인들의 친구 또는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이 지역에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원주민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나 관행을 따라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을 공동체 원주민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집성촌으로 인한 친인척 관계를 이유로 원주민들의 입장을 일방적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외지인들은 도심생활을 해오다가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가지고 귀농, 또는 귀촌한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이미 안정된 삶을 지내는 자들이다.

따라서 남은 생애에 자신들이 생각해 오던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려는 열망과 함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자하여 마을에 이주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자신의 삶의 영역을 잘 가꾸며 전원생활을 누려 보고자 하지만 뜻하지 않은 원주민들의 냉대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며 농촌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된다. 이는 더 나아가 원주민들이라는 단순 개념 보다는 배우지 못하고

무례한 시골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과 감정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의 일이나 행사에 비협조적이고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등 또 다른 냉대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대 속에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으로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심층면담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은 서로에게 감정적인 문제 말고서는 상황적으로는 특별히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함께 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발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즉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 역할을 맡아 줄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에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체를 향한 관심은 결국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며 그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요청하고 있다. 오랫 동안 지켜온 자신의 권위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자존감은 교회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통해 탈출구로 삼아 관계회복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 동안의 마을 목회에 따른 목회적 리더십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목회적 리더십을 요청받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Chapter Ⅲ

환대신학 관점에서의 갈등관계와 비판적 성찰

마을의 원주민과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로간의 주로 냉대와 소외라는 배타적인 현실 속에서의 인식전환과 태도전환을 필요로함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신학적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그들의 갈등 회복을 위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위해 '환대 신학'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타자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환대의 근간과 의미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성서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환대를 다루며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관을 제시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이웃사랑의 환대까지 다룰 것이다. 끝으로 원주민과 외지인들의 갈등 관계 속의 목회 돌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환대 신학을 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교회의 역할과 목회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적 성찰을 하며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A. 타자화

이곳 마을 공동체에는 오래 전부터 토착민으로 살아온 원주민들과 시골의 정(情)과 넉넉함,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이른바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이주해 온 소수자들이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마을 공동체에 외지인들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주민과 외지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서로 냉대와 소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겉으로는 마을의 화합과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의 내면에는 외지인들은 '우리보다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열등의식이, 그리고 외지인들의 내면에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문화와 수준이

낮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으로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 서로가 지니고 있는 열등의식과 우월주의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주민 내면에 있는 열등의식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비약시키며 타자화를 만들고, 동시에 외지인들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그들을 철저히 타자화 시키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에게 원주민들은 생활의식과 문화수준이 낮은 자들이라는 인식으로 그들을 타자화 시키며,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의 소속을 거부하는 스스로의 타자화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김혜란은 '내면화된 타자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말한다.[29]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식민종주국(서양)의 우월성과 식민지(동양)의 열등성이라는 억압적 이분법을 파생시키는 '타자화의 산물'이다.[30] 즉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를 열등하게 만드는 사고 또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김혜란은 흑백논리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와 힘의 논리로 강자와 약자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는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함께 존중하고 배워가는 '탈식민주의 목회'를 말하고있다.[31] 김애령은 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타자란 무엇인가? 추상적 의미에서 '타자(the Other)'란 주체에 의해 부여된 어떤 자리이다. 주체에 대한, 주체가 '아닌'. 주체가 지정하는, 주체를 넘어선, 주체가 알지 못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때문에 타자가 곧 다른 의식인 '타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타자/타자성은 주체적 자아의 가능성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다.[32]

---

[29]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lectur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laremont CA, May 6, 2018).

[30]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동인, 2013), 50.

[31]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32] 김애령, *주체와 타자 사이: 여성 타자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2), 30.

주체에게 있어서 타자는 낯선 자인데 이 낯섬은 마을의 공동체 내부에 있는 원주민과 마을 밖에서 오는 외부인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내부와 외부가 대립한다. 기존의 고유함과 타자의 다름이 기준이 되고, 익숙한 것과 새로움의 충돌로 타자는 낯선 이방인이 된다. 김애령은 "'이방인'이라는 표상은 주체 또는 집단 주체에 대하여 낯섦을 특징으로 갖는 타자화된 존재들이다"[33]라고 말한다. 외부자로서 이방인은 공동체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한 자,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즉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배제된 자이다. 계속해서 김애령에 따르면 이방인은 주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관점을 가져오는데 그들은 다른 체계에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공동체의 아웃사이더로서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34]

최진우에 따르면 지금도 이념, 종교, 출신, 학연,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타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는 바로 우리가 타자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누군가를 따돌리는 '왕따'의 사고 근저에는 타자화의 심리가 내재해 있음을 말한다.[35] 계속해서 최진우는 "타자화란 타자에게 타자성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 타자를 대하는 것, 즉 다름을 다름으로써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됨이나 열등함으로 규정하면서 배척과 배제의 대상 또는 억압과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일체의 사유 활동 및 행동을 일컫는다"[36]라고 주장한다. 최진우는 레비나스(Levinas)의 타자의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레비나스(Levinas)는 타자의 얼굴을 환원할 수 없는 타자로 표현하는데, 주체가 타자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서, 타자를 인식론적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명령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레비나스는 우리가 타자를 이해할 수

[33] 김애령, *주체와 타자 사이*, 39.
[34] 김애령, 40.
[35]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이론, 제도, 실천* (서울: 박영사, 2018), 9.
[36] 최진우, 10.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의 인식론적 틀 속의 타자를 동일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폭력을 지양하려고 했다. 동시에 그는 타자가 드러나는 순간인 타자의 얼굴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이러한 타자의 윤리적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해 온전한 주체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37]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타자화에 있어서 박종성에 따르면 "식민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늘 '열등한' 타자를 필요로 한다. 동일자의 반대개념인 '타자(the Other)'는 자신들과 다른 속성을 지닌 부류, 계층 및 인종을 일컫는다"[38]라고 말한다. 식민지배자들에게 타자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박종성은 식민지배자들이 우월감을 확보함으로써 타자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타자는 자신에 비해 '열등하다'라는 인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고정된 이미지를 널리 유포시키고 허위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지배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39] 이는 자신들의 기준에서만 타자를 보고 판단함으로서 갖게 되는 편협성과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러셀(Letty M. Russell)은 식민주의의 주역들의 관점에서 차이(difference)를 말하는데 "차이(difference)의 개념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나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남을 억압하고 침묵시키고 배제하고 업신여기는 이유로 차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40]고 말한다. 즉 러셀은 지배적인 그룹들의 보편적인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자'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41]

---

[37]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180.
[38]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살림, 2013), 29.
[39] 박종성, 31.
[40] Russell, *공정한 환대*, 63.
[41] Russell, 63.

결국 지역 토착 원주민과 도시로부터 이주해 온 외지인들 사이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상대를 '타자'로 여기며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원주민이 '주체'가 되고, 외지인이 '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타자화' 시키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 타자화가 멈추어지고 타자에 대해 수용하고 개방하며, 친밀하게 포용하는 환대가 적용 및 실천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자와 나와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를 넘어서 오히려 타자를 주인으로 여김으로 진정한 책임을 감당하는 환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 환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B. 환대란 무엇인가?

환대(hospitality)란 손님이나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거나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대는 낯선 이방인을 나의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환대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러셀(Letty M. Russell)에 따르면 "환대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세계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42]고 말한다.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환대는 필수 불가결하다. 환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경계를 허물고 모여들며, 공동체에 스스로 소속하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쾨닉(John Koening)은 '환대란 치유가 확산되는 공간이다'고 말한다.[43] 또한 쾨닉은 "환대라는

---

[42] Russell, *공정한 환대*, 24.

[43] John Koenin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단어는 노동과 여행 시 휴식을 위한 장소를 뜻하며, 우리의 집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44]라고 말한다. 또한 환대를 베푸는 행위에는, 주인이 이례적으로 관대하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관대한'(gracious)이란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다.[45] 이 환대가 타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현경은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환대가 타자에게 조건없이 나누어 주는 재분배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46]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의 법과 환대의 법들 사이엔 해결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 있음을 말하는데 즉 환대의 법은 무제한적 환대에의 무조건적 법인가 하면, 다른 한편 환대의 법들은 언제나 조건지어지고 조건적인 권리들과 의무이다"라고 말한다.[47] 즉 환대는 조건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조건이나 권리를 갖추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법이 서로 상충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데리다는 "초대받은 이든 불청객이든, 그들이 문지방을 넘어서는 행위는 언제나 침범의 발걸음으로 머물 수 밖에 없을 때 환대는 없다"[48]라고 말한다. 한스 부르마(Hans Boersma)에 따르면 "데리다에 있어서 환대란 문을 두드리는 낯선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주려는 준비됨과 완전한 개방의 자세이며,

---

2002), 9.

[44] Koening, *환대의 신학*, 17.

[45] Koening, 18.

[46] Koening, 193.

[47] Jacques Derrida, *On Hospitality 환대에 대하여,* trans.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104.

[48] Derrida, 103.

환대는 타자의 희생이 아닌 자기 희생을 뜻한다"[49]라고 말한다. 환대는 절대적이며, 순수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에게 외지인들은 그저 한 마을에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침범인이다. 때문에 환대의 대상이기 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서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겉으로는 무조건적인 환대를 말하지만 내면으로는 조건적인 환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을 입주 시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마을에 납부해야 하고 또 마을에 이세(里稅)도 내야 하며 특정한 장소나 물건을 이용할 경우나 어떠한 행사를 치를 때 그에 따른 조건이 붙으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50]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건들이 환대를 위한 조건이기 보다도 외지인들을 자신들의 기득권 안에 가두어 놓으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최진우는 "환대란 두 팔 벌려 타인을 내 집의 식구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51]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최진우는 환대는 곧 자아를 확장하는 시도이며 타자를 자아로 받아들임으로서 자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공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52] 즉 환대는 타자에게 무늬만 있는, 생색내기식의 관용이 아니라, 진실된 환대이어야 한다. 이것이 자크 데리다가 말하는 '절대적 환대'이다. 즉 환대란 타자에게 경계없이

---

[49] Boersma,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64.

[50] 김충령, "일제시대도 아닌데… 동네이장님께 이장세를 내라고?," *조선일보*, November 11, 2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5/2011112501167.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이세(里稅)란 일제시대 때 농촌마을 이장들이 수당도 받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과 심부름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답의 뜻으로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거둬들여 이장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하던 모곡(募穀)제도가 이세의 기원. 이후 곡식 대신 이장에게 현금을 주게 되면서 모곡은 지역에 따라 이장세, 이세 등으로 불리며 농촌마을의 관습으로 남았다."

[51]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20.

[52] 최진우, 20.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광기는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절대적 환대란 내 집을 개방하고, 성(gender)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진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미지의 절대적 타자에게까지 거처할 곳을 주고, 상호성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묻는 것 없이, 그들이 오게 놔두고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 장소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53]

김광기에 따르면 데리다가 부각시킨 환대의 개념은 타자와 살아가기 위한 필요 요건이며, 이것 없이는 타자의 관념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진다.[54] 이렇게 볼 때 타자와 삶을 병행해나가는 이방인에게 있어 환대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필수 덕목임이 분명해진다.

결국 원주민들에게 외지인은 철저하게 '타자'로서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경계의 대상 또는 적(敵)인 것이다. 한 공동체에서 상생할 수 없는 두 부류의 계층이 불편한 공존을 하는 셈인 것이다. 러셀은 "'타자'로부터 '동역자'로 움직여 나가면서 환대를 주고받는 것은 권력을 지배를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나누는 것(공유)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55]라고 말한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에 의거한 권력이 소유와 통제 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동역하는 자세를 가지고 러셀이 말하는 공정한 환대로 이어져야 한다. 러셀이 말하는 공정한 환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쪽 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치료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실천하는

---

[53]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서울: 글항아리, 2016), 275.
[54] 김광기, 276.
[55] Russell, *공정한 환대*, 89.

것이다"[56]라고 말한다. 즉 러셀은 공정한 환대는 환대의 관계에서 '저쪽 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환영을 본받듯이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57] 따라서 환대란 낯선 이방인이나 타자에 대한 적(敵)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편으로 인정하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서 속에 나타난 환대와 코즈모폴리턴 환대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대의 개념을 나누고자 한다.

1. 성서 속의 환대

쾨닉은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은 환영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말한다.[58] 신약 성서 속의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의 사역과 바울의 선교, 그리고 누가-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공동체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쾨닉은 '환대'와 '이방인과의 교제'가 어떻게 공동체의 사상과 관행을 발전시켜왔는지 해석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환대는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란 그 공동체가 나눔과 환대로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양한 차원의 관계회복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 쾨닉은 "환대란 치유가 확산되는 공간이다"[59]고 말한다.

쾨닉은 예수가 환대에 대해 생각한 것과 말한 것 그리고 행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제 1 세기의 유대인들의 환대를 생각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60] 고대 유대주의 속에서의 환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의 자신들의 집에서 세 명의 하늘의

---

[56] Russell, *공정한 환대*, 156.
[57] Russell, 157.
[58] Koening, *환대의 신학*, 5.
[59] Koening, 9.
[60] Koening, 39.

방문객을 영접하고, 방문객들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 자신들의 조상이 나그네와 주인으로서 유목민 생활을 하며 이방인과 나그네들의 필요를 잘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환대가 전승되며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이로인하여 유대인들은 집이 없는 타인들에게 주인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61] 쾨닉은 대표 구절로 레위기 19:33-34 를 꼽는다:

>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잇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3-34, 개역개정)

유대인들의 환대의 정신은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까지 이어지는 데 반면 유대 사회 속에 배타주의적인 모습이 함께 공존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그 런 사회 속에서 배타주의에 도전하며 오히려 주변인들을 찾아가는데 이 도전은 세리와 죄인들로 알려진 소외된 자들과 식탁에서 어울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속에 극화되었다.[62] 이는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을 통해 잘 드러난다:

>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막 2:15, 개역개정)

특히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 또는 정신적 빈곤, 불결한 직업, 혹은 범죄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쾨닉은 이 예수 공동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61] Koening, *환대의 신학*, 40.
[62] Koening, 46.

> 예수의 공동체는 태어날 때부터 외면 받는 신분으로서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공경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접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동정 어린 사자와의 우정을 위하여, 과거의 모든 제한들을 포기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해방이 있다. 예수와 그의 동반자들에 의해 나누어진 이 즐거움은 변두리 사람들을 포옹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 왔던 슬픔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공동체에 가입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에워싼 집단들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기능을 했다.[63]

예수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치유에 집중하는데 이 치유는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친구와 가족들과의 상호의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때문에 예수는 주로 가난하고 약탈당한 이들에게 말씀을 했으며 그들을 돕는 말을 했다.[64] 이렇게 예수의 환대는 예수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환대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영접한 것같이 서로서로를 영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러한 상호간의 영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정'(home) 속에서 갖추어만 하는 것이다.[65] 바울은 이 영접이 무엇보다도 식사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두고 쾨닉은 "바울의 로마인 독자들로 하여금 제국의 수도 속에 있는 세상에 드러난 그들의 식사 관행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여는 창문으로 봉사해야만 하도록 기능한다. 특히 식사에 '타인'을 매일 영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행위이다"[66]고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로지 신자들은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또는 이방인을 인식하고 서로를 영접하고 환대할 때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가정은 우리 모두가

---

[63] Koening, *환대의 신학*, 60.
[64] Koening, 61.
[65] Koening, 95.
[66] Koening, 102.

열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손님과 주인이라는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러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는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곤궁한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적 메시지의 초석이다”[67]고 말한다. 환대는 우리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사회적 조건들을 심각하게 고려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영할 때 시작이 된다. 이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요소가 단지 교리나 신앙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서로 다른 계급, 인종, 성별, 능력, 연령 그리고 성적인 성향과 정체성도 있다. 러셀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가능성을 믿고 다른 사람을 환영할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환대를 교회가 실천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앙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도록 그리스도가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68]

우리의 이웃을 보고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환영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러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7, 개역개정)

---

[67] Russell, *공정한 환대*, 161.
[68] Russell, 162.

강남순은 성서 속의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이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나아가 '절대적 환대', 즉 '방문의 환대'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69] 예수는 삭개오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정죄를 하지 않고 다만 삭개오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라는 선언을 한다. 이에 삭개오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예수를 자신의 집에 영접함으로써 예수의 '바라봄'과 삭개오의 '받아들임'이 환대의 핵심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서 속의 환대와 사랑의 실천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영의 자리로 초대받는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환영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 초대에 응답하기를 촉구받고 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환대와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또 성서의 여러 곳에서 타자에 대하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안의 갈등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성서 속에 나타난 환대의 근간과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환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환대 공동체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정신으로서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라'는 예수의 정신과 상관된 삶을 실천하며 예수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6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0.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는 성서를 근거로 타 종교, 젠더, 장애우 등 중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려 성서가 말하는 사랑하고 환대하는 예수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2. 코즈모폴리턴 환대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은 우주를 뜻하는 cosmos 와 시민을 뜻하는 politan 이합쳐진 말로 직역하면 우주적 시민, 세계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순에 따르면 코즈모폴리터니즘 사상은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특히 디오네게스(Diogenes of Sinope)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물음에 통상적으로 ‘시노페의 시민’이라 하지 않고 “나는 우주의 시민이다”고 답을 했는데 이 시점을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70] 이를 계기로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자신이 태어나거나 소속한 지리적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우주’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코즈모폴리터니즘이 이야기하는 ‘세계시민’으로의 인간이해는 종교적인 가르침과도 연관이 되는데, 강남순은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에 있는 예수는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원수 사랑”으로까지 확장하면서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등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환대, 책임, 연대의 요구를 한다고 말한다.[71]

코즈모폴리터니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아 환대, 연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을 말한다. 즉 장소나 소속, 그리고 경계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와 연결해보면 현재 토착 원주민과 이주해 온 외지인들은 각각 다른 환경과 배경, 그리고 정서와

---

[7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3.
[71] 강남순, 22.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서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즈모폴리터니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에 상관없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는 환대와 연대의 이웃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우주적인 사랑과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환대신학이 중요한데 이는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보여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연대, 그리고 환대의 실천이다. 강남순은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를 말하면서 코즈모폴리턴 환대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환대의 신학은 한 인간을 사회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위치나 역량 등과 상관없이 신의 형상으로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주에 속한 '동료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환대의 신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분이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얼굴'을 지닌 개별적 존재로 보는 '개별성의 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셋째, '환대의 신학'이란 개인의 구제나 관대함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담론이고 실천이다.[72]

따라서 강남순은 환대가 구제의 의미로만 이해될 때에는 환대를 받는 자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손님'이 자신들의 규율과 조건에 맞지 않을 때, 그 '손님의 권리'는 무참하게 묵살된다고 말한다.[73] 아울러 데리다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손님'과 '방문자'들에게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제한적 환대의 절대적 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무제한적 환대에 대해 강남순은 환대의 범주를 "이웃, 이웃의 이웃, 그리고 동료가 아닌 사람들인 타자의 이웃"인 "제 3 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74] 따라서 환대의 신학은 낭만적이거나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를 우주적 책임으로 초대하면서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의 거리를

---

[7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8.
[73] 강남순, 198.
[74] 강남순, 199.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과제를 상기시키는 이는 결국 코즈모폴리턴 환대신학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코즈모폴리턴 담론은 모든 개별인이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 함께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을 갖는데 이에 대해 강남순은 '연민적 시선'이란 동정심이나 이타주의가 아닌 '함께 고통함(compassion: suffer-with)'이라는 의미라고 말한다.[75]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차나 형식, 즉 외형적인 것보다도 예수의 믿음과 실천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예수의 믿음과 가르침은 그의 연민적 시선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성서 속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연민의 시선에 의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남순은 예수가 보여준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 연민의 시선이 진정한 환대의 선행 조건이다고 말한다.[76]

예수에게 있었던 '연민의 시선'이 무엇인가? 결국 타자를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습이나 편견,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고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은 타자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데 이는 코즈모폴리턴에 근거한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익숙하고 가까운 타자만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낯설고 먼 타자인 모든 사람을 우주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보는 코즈모폴리턴 시선이 필요하다. 강남순에 따르면 "코즈모폴리턴 시각을 가질 때에 소위 '원수'는 나의 가까운

---

[7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59.
[76] 강남순, 160.

동료와 친구 및 이웃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77]고 말한다.

결국 코즈모폴리턴 환대는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동료로 보며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며 그들에 대한 환대와 연대의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일상의 생활 가운데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타자에서 함께 해야 할 이웃으로의 인식의 변화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 속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많은 조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타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환대이다. 예수가 실제로 보여준 실천적인 삶은 환대로서의 이웃사랑이다. 지역에 속한 교회는 그 지역 마을 공동체 가운데에 조건없이 식탁의 자리에 초청했던 예수의 무조건적인 환대의 실천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분 없는 사랑의 환대, 즉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주민과 외지인,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그리고 정서와 문화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교회는 코즈모폴리턴 리더십을 통한 실천적 환대로 연대와 상생이라는 치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나와 같은 조건을 지닌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 가운데 있어도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환대를 교리 안에만 가두어두지 않고 타자에 대한 경계를 넘어 연대와 환대, 그리고 보살핌과 사랑, 즉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실천적인 환대신학적 목회 돌봄에 관심하여야 한다.

C. 환대신학 관점에서의 비판적 성찰

환대의 신학은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위치나 역량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으로 그리고 우주에 속한 동료 시민으로 보는 연민적 시선에서 출발한다.

---

[77] 강남순, *코즈코폴리터니즘과 종교*, 232.

또한 환대의 신학은 낭만적이거나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타자를 초대하면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한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며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대 신학의 관점 아닌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순한 교리 안에 갇혀 원론적인 목회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목회를 성찰하게 한다.

3년 전 지금의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마을 목회를 시작한다고는 했지만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환대신학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목회에만 머물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 마을의 모임이나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한 교회 등록 교인 여부에 상관없이 마을 안의 각 가정들의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민들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는 일반적인 목회 돌봄을 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갈등의 문제에는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했고 또 모른체로 일관하며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나름 중간 역할이라는 위치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교인들과 관계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깊이 개입하지 않고 단순한 신앙적인 조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이었다. 갈등 회복을 위한 권면이나 교육, 또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목회적 접근보다도 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정도의 목회적 돌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환대 신학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이해의 부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하여 환대신학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목회가 목회 현장과 큰 괴리감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극히 원론적인 신학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실천적이지 못한 목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 원주민과 외지인의 갈등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언어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합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등의 피상적인 권면을 하였지만 반면

그들이 왜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갈등을 표면화하는 그들의 내면에는 어떠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는지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때문에 환대 신학을 경험한 후 나는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갈등의 이면에 내재된 심리적인 사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런 갈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목회적 돌봄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대 신학을 경험하고부터 본 연구를 진행하기까지 이전과는 달리 목회의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지게 됨을 경험하고 있다. 전에는 이미 전통적이면서도 교리적인 목회의 관점에 상황을 맞추어 이해하려 했다면, 이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또한 신학적인 분석을 통한 보다 실천적인 목회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코즈모폴리턴 환대에서 말하는 연민적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연구 분석한 바대로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사이에는 분명한 갈등의 요소와 그로 인해 표출되는 냉대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의 내면에 같은 공동체라는 존재감과 상생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은 갈등 회복을 위한 희망을 갖게 해 준다. 단지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끌어내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제3의 역할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갈등관계 속에 접촉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의 경험으로만 상대를 평가하는 감정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연민적 시선을 통한 관점의 변화로 얻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환대신학 관점에서의 목회적 돌봄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환대신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을 공동체의 갈등 관계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도출되었듯이 서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상의 문제로 서로를 타자화 시키며 소외와 냉대로 일관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 즉 양쪽의 배타적인 심리적 표현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 속에서 원주민과 원주민이라는 두 가지의 부류로 서로 대치하는 분열된 모습은 서로에게 피로도를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다행히도 원주민과 외지인 서로에게 내재해 있다. 단지 그들의 자존심이 먼저 그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들의 심리적인 욕구는 교회라고 하는 나름 중간지대를 통해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며 환대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희망을 갖게 한다.

환대신학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성찰을 가져본다. 따라서 원주민과 외지인이 심층면담을 통해 서로의 갈등의 요소들을 드러냈지만, 반면 대립하고 있는 긴장관계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상생을 표현하고 또 이를 위해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의 중재 역할과 목회적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음에 환대 목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교리에 근거한 미시적인 목회 돌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환대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환영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환대적 목회돌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현재 전원생활을 하고자 마을 공동체에 이주하는 외지인들이 늘어날 추세이며 이는 숫자적으로 원주민들과 동등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서로의 다른 문화와 차이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로의 환대를 가로막고 있는 원주민과 외지인들의 내면에

내재된 요소들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이해와 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4장에서는 탈식민주의적 환대의 실천과 환대 목회의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Ⅳ

탈식민주의적 환대공동체

한스 부르스마(Hans Boersma)는 화목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복음적 환대를 말하는 데, 이 복음적 환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화목의 환대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로서의 환대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환대가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공공의 정의와 해방의 환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교회의 경계를 넘어 밖에까지 환대를 실현하는 복음적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가 오직 환대와 화목의 공동체로서의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환대 목회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 안에 내재된 심리적인 상태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재분석하여 교회 공동체의 탈식민주의적 환대의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대 목회의 실천을 위한 마을 목회의 실질적인 방향과 대안,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A. 탈식민주의 이론

탈식민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 유럽제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들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유럽제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든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식민주의가 정치 제도적 차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청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의 영역에 끼친 식민주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우리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을 규명함으로써 이로부터 벗어나기를 목표로 한다.[78] 탈식민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78] 김지현 et al.,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역락, 2012), 8.

> 두 개의 작은 방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각 방에는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각각 모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두 개의 방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 무작정 방문을 열었을 때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 개의 방 중 한 방으로 들어가자 매우 익숙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그는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새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는 왠지 낯설고 어색할뿐더러 냉담한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는 자기 자신이 그들과는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특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내의 주류와는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군지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한국 바깥의 비한국인들, 나아가 서구 바깥의 비서구인들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소수자 출신이라는 것, 항상 주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정상인으로서 결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곧 발언할 수 있는 권한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79]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든 집단에 대해서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탈식민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국적이 달라도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현실은 불평등한 상황가운데 차별과 냉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경쟁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갈등과 분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를 더욱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실천이론이다. 즉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와 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성에 따르면 식민주의는 열등감과 불평등 및 역사의 왜곡을 낳으며, 세계적으로 큰 비극을 초래했는데 이런 식민주의를 비판적 시선으로 읽어내려는 대응담론이 바로 탈식민주의이라고 말한다.[80]

탈식민주의란 불평등이나 억압, 그리고 착취를 낳는 지배권력의 구조를 해체하며 그 구조 속의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토착 원주민들의 외지인에 대한 열등감이나, 반면 외지인들의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모두 배타성이라는 특징으로 환대로 나아가는 것을

79 김지현 et al.,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14.

80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4.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원주민에게는 토착민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지인에 비해 궁핍한 자라는 사실, 또 외지인은 지역에 처음 이주해 온 자라는 약자라는 의식과 반면 원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는 양가성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한다. 때문에 서로에게 식민주체와 피식민주체가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양가성'을 받아들이고 환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타자'로부터 '동역자'로 나아가 서로 협력하는 환대를 주고받아야 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학자인 호미 바바가 말한 전 지구화 과정 속에 틈새 공간으로서의 '제3의 영역'(third space)과 양가성(ambivalence) 또는 혼종성(hybridity)을 중심으로 환대의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B. 탈식민주의적 환대의 실천

1. 양가성(ambivalence)과 혼종성(hybridity)을 중심으로

원주민과 외지인 서로간의 불편함을 갖게 된 동기부여가 서로에게 있겠지만, 상황과 형편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가운데 있는 외지인들이 원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로 대항해 가기 보다는, 대부분이 농민들이며 주로 고령자인 원주민들의 정서를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흔히 말하는 시골만의 정(情) 문화가 되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그러면 서로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원주민들의 외지인들을 향한 배려와 환대도 필요할 것이다.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관습화 되어 있는 문화와 정서들을 무조건적으로 외지인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마을에 정착하고 한 공동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마을 공동체의 관행이나 관습을 통해 외지인들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외지인들의 생소한 삶의 정서나 문화들이 혹시나 자신들을 지배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 실제로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외지인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마을 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외지인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들 만의 세력을 모아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외지인들을 환영은 해야겠지만 마을의 기득권을 내주기는 싫고, 반면 점점 늘어나는 외지인들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 보니 원주민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그 내면의 심리적인 것들이 냉대와 소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귀농한 외지인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농민으로서 조언이나 도움을 주기 보다는 관망하며 외지인들의 농사가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시기심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외지인들에게 농민인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관행에 따라 줄 것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따라주되 자신들을 앞서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원주민들의 양가적인 행태는 결국 외지인들을 '혼종'(hybridity)이 되게 한다. 박종성에 따르면 호미 바바(Homi Bhabha)는 "식민지인들은 피식민지인들이 식민지인들을 모방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따라하기와 구별 짓기라는 양가적 욕망이 작동함으로써 피지배자는 '혼종'(hybridity)이 된다"[81]라고 말한다. 결국 식민지인 입장인 원주민들이 피식민지인인 외지인들 앞에서 전통과 관례를 내세운 지배 욕망이 있다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외지인들로부터 오히려 약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는 양가적 욕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박종성은 바바의 양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식민지배자는 피식민지인 앞에서 지배욕망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이런 양가적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보자. 흑인이 추워서 떨고 있다. 이에 대한 식민지배자의 반응은 흑인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짐짓 생각한다. 이것은

---

[81]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58.

> 백인의 불안감, 불안에 대한 편집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불안은 백인의 정체성이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이다.[82]

조만성은 "양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완전히 다 포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83]고 말하며 바바의 양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양가성은 어느 대상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 대상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완전히지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대상을 지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근대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지니는 특성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특성을 갖지 못한 대상, 즉 근대적 인간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근대적 인간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게 되고, 그 안에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양가성을 드러내게 된다.[84]

박종성에 따르면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나 비슷해야만 하고, 완전히 똑같아서는 안 된다"[85]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종주국은 식민국을 지배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가적 욕망이 작동함으로써 '혼종'이 나타난다고 말한다.[86] 바바는 이런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통일성, 순수성 및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려 한다. 이상환은 바바의 혼종성은 문화의 혼종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문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탈식민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87] 그리고 바바의 우등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라는 경계를 없앰으로서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

[8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57.
[83] Huddart,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8.
[84] Huddart, 8.
[85] 박종성, 58.
[86] 박종성, 58.
[87] 김지현 et al.,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104.

그래서 혼종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88]라고 말한다. 나병철은 바바의 양가성과 혼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호미바바(Homi K. Bhabha)의 양가성 이론은 서구의 상징계적 시선, 담론의 권력이 타자의 저항에 부딪혀 분열되면서 실재계를 드러내게 됨을 논의하고 있다. 양가성이나 혼종성의 순간은 타자를 서구의 상징계 내부에 가두려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며, 바로 그 분열의 틈새에서 타자의 저항의 계기가 만들어진다.[89]

조만성은 바바의 혼종성은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작용하여 혼종적인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출발점은 지금 우리가 문화들 간의 경계선 또는 중간지대라고 여기는 지점이라고 말한다.[90] 이상환은 바바가 혼종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양가성은 지배자의 분열적 상태를, 혼종성은 피지배자의 저항 전략을 각각 가리키며, 더 나아가 탈식민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양가성과 혼종성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91]

김혜란은 혼종성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지 않은, 원주민처럼 되려하나, 또는 되도록 종용받으나, 똑같을 수 없는, 그리고 똑같이 되기를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섞임의 존재라고 말한다.[92] 결국 토착 원주민으로서 전통과 관례를 이유로 이주해온 외지인들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함께 외지인들에 비해 열등한 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내재된 양가성이 외지인들로 하여금 혼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서로간의 양가성과 혼종성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감과 생활의 불안정을 가져다주고, 또한 마을

---

[88] 김지현 et al.,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105.
[8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 나병철 (서울: 소명, 2018), 16.
[90] Huddart,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8.
[91] 김지현 et al., 144.
[92] 김혜란,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the Postcolonial World."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중재역할을 암묵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로의 구분이 아닌 그 틈새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 3 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한다.

2. 제 3 의 영역(third space)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원주민과 외지인들은 서로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으로 관계 회복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을 떠나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연대하고 상생해야 함을 인식하며 때가 되면 화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않는, 즉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가 발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시작이 언제이며 또 누가 그 역할을 맡아 줄 것인가에 대한 드러내지 않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서로에게 드러내지 않은 마을 공동체를 향한 관심은 결국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며 그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요청하고 있다. 오랫 동안 지켜온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자존감은 교회라고 하는 중간지대를 통해 탈출구로 삼아 관계회복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환대신학을 경험하기 이전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마을 목회에 따른 목회적 리더십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중간지대로서의 교회와 목회적 돌봄을 위해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제 3 의 영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바바는 양가성과 혼종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에 박종성은 “자아와 타자, 주인과 하인, 자국문화와 타문화의 구분이 아니라 ‘경계선상’(borderline) 혹은 ‘사이-속(in-between) 공간이다. 이런 시각은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제 3 의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다"[93]라고 말한다. 또한 정형철은 "바바의 혼종성은 다른 입장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 3 의 공간'이 된다"[94]라고 말한다. 데이비드 허다트(David Huddart)는 제 3 의 영역에 관한 바바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나에게 혼종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 3 의 것이 나타나는 두 개의 근원적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내게 혼종성은 다른 위치가 나타나게끔 해 주는 '제 3 의 공간'이다. 이러한 제 3 의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역사들을 대신하고, 권위의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정치적 주도권을 설정한다.[95]

이소희는 바바의 제 3 의 영역에 대해 "그동안 정의되지 않았던 경계선 영역(borderline)을 주목하고 새로운 언어적 기호로 '국가들 사이의 틈새 영역'이라는 개념을 'international in-between space'라는 용어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96]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이소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자본의 전지구화 현상으로 사람들의 대 이동이 일어나고 여러 인종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서 문화적 잡종(cultural hybridity)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경계를 넘어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 3 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고 말한다.[97]

하지만 제 3 의 영역은 이질적인 또는 차이를 가진 문화가 만나 형성되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연결고리 같은 그리고 아직은 불안정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제 3 의 영역에서 불균형이 낳는 새로운 억압과 차별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제 3 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상호접촉, 작용, 대화를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혼종성이 양날을 가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 두어야 한다.

---

93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58-59.

94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91.

95 Huddart,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228.

96 이소희, "호미바바의 "제3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August 2001): 103-4.

97 이소희, 105.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원주민과 외지인들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바바의 '양가성(ambivalence)'과 '혼종성(hybridity)'이론은 어느 정도 반식민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즉 원주민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외지인들을 향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주민과 외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제 3 의 영역(third space)'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한 공동체 안에 원주민과 외지인이라는 서로 다른 경계선 상의 계층이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상생의 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교회는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계층을 위한 제 3 의 영역으로서의 포괄적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며, 이들 모두가 냉대와 차별의 대상이 아닌 환대와 평등의 대상이 되도록 탈식민적 고민과 마을 공동체를 향한 환대 목회를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가 마을 공동체 가운데에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여 환대를 이루어가는 제 3 의 영역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라는 인식에서 탈피, 즉 탈교회화를 시도하여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 교회는 늘 제 3 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교회라는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의 실천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제 3 의 영역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한 가족의 일원이며 더 이상 변두리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환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성별, 나이, 인종, 젠더, 장애우 등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제 3 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천적인 환대를 위한 목회적 접근과 또 이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C. 환대 목회의 실천

1. 마을 목회

마을 목회가 무엇인가? 성석환에 따르면 "마을 목회가 의미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지향하는 목회를 통칭하는 것이다"[98]고 말한다. 마을 목회라 하면 교회가 마을 가운데 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으로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마을 목회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마을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교회의 입장에서, 즉 예배나 전도, 교육, 친교, 봉사의 틀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 목회는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한 마을을 꿈꾸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조용훈은 지역의 교회들이 지구 생명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즉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지도상의 구분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는 '마을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99]

나는 부임 초기 주로 고령의 노인들로 이루어진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였다. 이후 결정한 것이 바로 마을의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한 교회의 목사로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마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이 교회를 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때문에 찾아가는 목회, 다가가는 목회,

---

[98]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187.
[99]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6.

그리고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위해 일반적인 교회중심 목회가 아닌 주민들과 상생하고 연대하는 마을중심의 마을 목회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촌에 위치한 교회는 마을이 선교의 공간이 되며 마을 주민이 모두 잠재적 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마을 목회를 전개해야 함도 잊지 않고 있다. 마을에 관여하고 접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석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마을 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마을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100] 지역 주민이 특정한 대상으로만 설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용훈은 지역 교회가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을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상관성에 대해 목사가 분명한 목회철학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며 목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목회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된다. 목회란 교인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포함하는 지역목회이며, 목사란 교회에 갇힌 목사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을 섬기는 목사다.[101]

마을 목회라 함은 마을을 위해 대단한 공로나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보다도, 궁극적인 것은 마을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마을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는 환대 공동체로서 마을 주민과 더불어 살며 마을을 향해 열린 모습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마을 주민을 대상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사역과 또 나아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에 도전을 주도록 한다.

---

[100]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187.
[101]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41.

나는 마을 목회를 위해 부임 초기부터 마을의 대동회나 총회 등 주민들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경조사에 참여하고 또 일터의 현장에 적극 방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원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은 외지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공통적인 마을의 현안이나 주제들을 나누었다. 그 때마다 나는 교회의 목사가 아닌 마을의 목사인 것을 강조하며 주민들과 마을의 일을 공감하고 소통하였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부임 첫 해에 마을의 민원을 나서서 해결한 일이다. 당시 마을을 동서남북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된 즈음이었는데 정작 이 마을에서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위까지 불사하던 마을이었지만, 결국 도로공사 시행사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힘없는 자신들을 원망하게 되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만 갔다. 이에 나는 현장답사와 함께 전후 상황을 파악한 후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있는 기회로 삼으며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시청에 민원제기와 함께 진출입로 개설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및 진행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위원회 구성을 원주민과 외지인을 함께 구성하여 현안 외에 대화와 교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 대책위원회의 수고와 노력으로 민원이 잘 진행되어 민원 제기 6 개월 만에 진출로가 개통이 되었으며, 현재는 진입로 개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써 얻어진 유익이 참 많다. 민원을 진행하며 마을 주민들과 관공서 담당자들이 네번에 걸쳐 교회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수십년을 같은 지역에 살면서 교회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는 주민들이 예배당에 첫 발을 내 딛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일 때 마다 적극적인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주민들을 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민원의 진행과 발표를 맡으면서 주민들과 친밀해졌으며 거기엔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일을 통하여 마을의 목사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되고 마을에 목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집집마다 꽃나무 심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마을 내부적으로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기획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참여하여 공통의 주제를 다루며 연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을의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 도심으로 전출한 자녀 세대들이 다시 들어와 살고 싶은 고향 마을, 자녀 손(孫)들이 가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그리고 지역을 찾아 방문하는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하는 마을이 되게 하고자 것이다. 또한 근교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점차 유입되는 외지인들을 환대하고 함께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목표도 세워가고 있다.

또한 마을 목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관과 민이 협력할 수 있는 행정과 목회지도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일련의 모든 모임과 과정 가운데에 마을 공동체 안의 원주민과 외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낯선 벽을 허물고 마을 공동체원으로서 연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고자 한다. 특별히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지역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 때 일방적으로 관공서가 주도하는 마을의 개발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모든 일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과 추진에 있어서 목회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결국 이 모든 마을 목회를 위해 교회가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를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대 및 화합을 도모하는 제 3 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가 선교적 사명의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오필승은 교회가 교인들만의 교회로, 또는 목회가 교인들만 상대하는 목회가 아닌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마을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가운데 마을 살리기를 시대적, 선교적 사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말한다.[102] 따라서 교회는 마을 목회를 통해 환대와 연대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환대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관심을 교회 밖의 마을로 전개하여 지역 마을의 다양한 특성을 찾아내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주민들과 밀접한 접촉점을 갖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마을 목회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과 연대하는 마을 교회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을 목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 마을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 마을이 선교의 공간이 되며 마을 주민이 모두 잠재적 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교회 중심의 목회가 아닌, 지역 중심의 마을 목회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환대적 목회 돌봄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 안에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적연구의 근거이론을 통해 그 이면에 내재된 심리를 연구 분석하며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또 목회적 리더십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원주민과 외지인 모두가 마을 공동체를 향한 변화의 욕구와 기대심리가 작용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마을 속에 하나 밖에 없는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교회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102] 유성준 et al.,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서울: 공옥출판사, 2018), 290.

공식적으로 나서서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나는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그들의 욕구와 기대 심리를 앞 장에서 환대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더 나아가 탈식민주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루며 보다 구체적인 갈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앞에서 나누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 목회의 근간을 이루게 될 환대적 목회 돌봄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강남순이 말하는 성별, 나이, 사회계층을 초월한 평등성과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성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소위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포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환대목회를 실천하고자 한다.[103] 따라서 포괄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하여 환대신학과 탈식민주의에 근거한 목회 사역과 돌봄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미 앞에서 논의 된대로 목회의 현장 속에는 환대가 필수 불가결하다. 환대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에만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여들게 되고, 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소속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마을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환대목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지역에 상관없이 선교적 필요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석환에 따르면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 이웃이 되는 것이고, 마을 목회는 이런 삶을 살도록 돕는

[10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4.

것이라고 말한다.[104] 지금의 시대는 이웃이 없는, 아니 이웃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목회 속의 환대적 목회돌봄을 통해 조건 없이 함께 하며,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이웃'을 세우고 또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환대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러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는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곤궁한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적 메시지의 초석이다"[105]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가 환대를 실천하고 또 목회자가 환대적 목회돌봄을 실천하려면 구분과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참여와 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나눈 대로 교회는 그 동안의 마을 목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환대적 목회는 교회에 제한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들을 목회적돌봄 대상을 삼아야 한다. 마을 행사를 추진하거나, 또는 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서로 연대하도록 하며, 나아가 마을 주민들과 관련된 경조사 참여와 환우 방문, 그리고 일터 방문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실질적인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정한 환대를 실천하여야 한다.

환대적 목회는 대립과 분열이라는 갈등의 구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 차이를 넘어 연결시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나그네를 영접하고 낯선 자들을 환대했던 성서 속의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종교적 배경, 성별,

---

[104]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193.
[105] Russell, *공정한 환대*, 161.

그리고 생활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상호간의 목회를 실천함으로 환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Chapter V

결론 (Conclusion)

지금까지 연구참여 대상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을 공동체원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원주민과 외지인, 양측 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차이는 그 간격을 좁힐 줄 모르는 아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 차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러셀은 차이(difference)란 개념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106] 즉 지역 토착주민과 도시로부터의 이주민들 사이의 문화 정서적 차이가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상태로 인한 충돌이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는 출발점이 되며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기인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로를 '타자'나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상생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갖는 고민은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이다.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태도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미 마을 목회를 선언해 온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원주민은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외지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마을 목회 속의 환대적 목회 돌봄이 더욱 더 강조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106] Russell, *공정한 환대*, 63.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회는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계층을 위한 제 3 의 영역(third space)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이들 모두가 냉대의 대상이 아닌 환대의 대상이 되도록 목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러셀은 기독교의 환대는 노숙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과, 예배당에 낯선 자들을 환영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연대를 이루는 행동들도 포함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볼 수 있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107] 따라서 교회는 마을 공동체에 서로 간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관습에 억매이지 않으며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희망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비전들을 지속적으로 원주민 및 외지인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제의 장을 계속해서 교회가 제공하도록 한다. 특별히 마을 공동체에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었던 마을 도로 관련 민원의 공사비 10 억이라는 예산이 얼마 전 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본 연구 중에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로인해 교회는 원주민과 외지인들의 또 다시 환영과 관심을 받게 되며 다시 한번 목회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유익을 갖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기독교의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환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가 성령안에서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현현은 타자에 대한 책임행위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응답인 것이다.

---

[107] Russell, *공정한 환대*, 163.

환대는 교회와 목회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환대는 교회란 공동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안에만 가두어서도 안된다. 환대를 상대를 가리지도, 따지지도, 즉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향한 마을 목회가 환대적 목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환대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 공동체의 일원들은 경계를 허물고 모이기에 힘쓰며 소속감과 함께 결속력을 갖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환대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만큼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이 다양한 성향이나 문화로 표출됨으로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갈등과 분열이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환대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서 그러한 부정적 현상들을 제거하여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 환대가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배경이 다르다거나 문화가 다르다고, 또 수준과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대의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 3 의 영역(third space)으로서 솔선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러셀에게 있어서, 환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이며, 환영을 받는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환영을 체현하는 것이다고 말하는데 즉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한다.[108] 따라서 교회가 먼저 낯선 자들을 환영하고 진정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갈등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데에 섬김의 노력을 기울여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도구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

[108] Russell, *공정한 환대*, 191.

나는 지금 교회 건축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한 비전을 지난 창립기념일 주민 초청의 시간을 통해 OO 리(里)의 꿈이란 주제로 마을 목회의 비전을 마을의 주민들과 나누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OO 교회는 창립 50 주년을 넘어서며 마을 위한 교회, 마을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며 화목한 예수마을을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마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나눔과 사랑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고 신앙의 모범을 만들어가며 살기 좋은 마을, 또 살고 싶은 마을, 자녀들이 이 마을이 고향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새롭게 지어질 교회는 크고 화려함 보다도 소박하면서도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며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쉼과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머물고 싶고, 예배당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전원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주변의 자연과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며, 작지만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겨지고 소박한 마을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마을의 주민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따뜻한 가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건축 착공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마을 주민들도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역할과 목회적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교회 건축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목회와 복지목회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마을 목회 가운데 환대적 목회적 돌봄에 관한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오면서 반면 예수의 정신으로 세워져 갈 예수 마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잊지말아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원주민 외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연대하며 상생하도록 성서 속의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순이 말한 무조건적 연민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 즉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고 연대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대로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포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환대 목회를 실천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성기영 목사입니다. 저는 "농촌 마을 공동체의 갈등 치유와 목회 돌봄에 관한 질적연구: 환대신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담당하시는 김남중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한 시간가량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성기영 목사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giyoung.sung@cst.edu 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9-01 입니다. 또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서명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이름: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 서명: ________________

연구자 이름: 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 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 (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동녘, 2018.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서울: 글항아리, 2016.

김애령. *주체와 타자 사이: 여성 타자의 은유.*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2.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and 임한나. *질적연구의 즐거움=Qualitative Research.* 서울: 창지사, 2018.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 방법론 III: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지현, 박효엽, 이상환, and 홍인식. *탈식민주의의 얼굴들: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역락, 2012.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살림, 2013.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한국적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8.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유성준. *한국교회 희망은 있는가: 서번트리더, 서번트목회.* 서울: 공옥출판사, 2018.

정형철.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서울: 동인, 2013.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서울: 동연, 2017.

최진우. *다양성의 시대, 환대를 말하다: 이론, 제도, 실천.* 서울: 박영사, 2018.

[번역서]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문화의 위치*. Translated by 나병철. 서울: 소명, 2018.

Boersma, Hans.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Translated by 윤성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Derrida, Jacques. *On Hospitality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Koenin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 2002.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공정한 환대.*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학술논문]

이소희. "호미바바의 "제3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vol. 9, no. 1 (August 2001): 103-125.

[웹사이트]

김충령. "일제시대도 아닌데… 동네이장님께 이장세를 내라고?" *조선일보.* November 11, 20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5/2011112501167.html?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2 차 자료 (Secondary Resource)

[한서]

김도일. *가정, 교회, 마을 교육공동체.* 서울: 동연, 201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뉴스앤조이. *시골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2014.

라은성. *연구주제부터 포맷까지.* 서울: 그리심, 2017.

박상우.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 교육과학사, 2016.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7.

이창언, 오수길, 유문종, and 신윤관.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서울: 살림터, 2016.

정재영 and 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서울: 문학과학사, 2004.

[번역서]

Huddart, David. *Homi K. Bhabha by David Huddart 호미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Translated by 조만성. 서울: 앨피, 2011.

Jennings, Theodore W. *Reading Derrida/Thinking Paul: On Justice 데리다를 읽는다/바울을 생각한다: 정의에 대하여.* Translated by 박성훈. 서울: 그린비, 2017.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ase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Morton, Stephen. *Gayatri Chakravorty Spivak 스피박 넘기*. Translated by 이운경. 서울: 앨피, 2011.

Nouwen, Henri J. M. *The Three Movements of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움*. Translated by 이상미. 서울: 두란노, 2001.

Stott, John R. 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2018.

[학술논문]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6)]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August 2014): 234-50.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5)] 탈정치적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기독교사상* 667 (July 2014): 222-42.

강성영. "타자와 함께 타자를 향한 길." *가톨릭신학과사상* 73 (June 2014): 141-69.

김광기.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현상과인식* 118 (December 2012): 141-70.

김혜령. "마을 공동체 운동과 마을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7 (December 2013): 197-236.

손운산. "[돌봄의 목회④] 낯선 이를 환대하라." *기독교사상* 640 (April 2012): 260-70.

이민우, 이명식, and 정성원.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적용.” *대한건축학회*, vol. 32, no. 1 (January 2016): 117-28.

이승수.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환대의 이중심리와 神의 탄생." *한국언어문화* 54 (2014): 5-25.

이후정. "[충만한 영성의 삶을 위하여 (11)]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사상* 674 (February 2015): 206-14.

[웹사이트]

이대웅. “코즈모폴리터니즘, ‘이웃’과 ‘타자’ 대한 책임감과 환대.” *크리스천투데이*. February 21, 2016.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89184.